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말씀>

주 앞에 두 증인

본 문 요한계시록 11장 3-6절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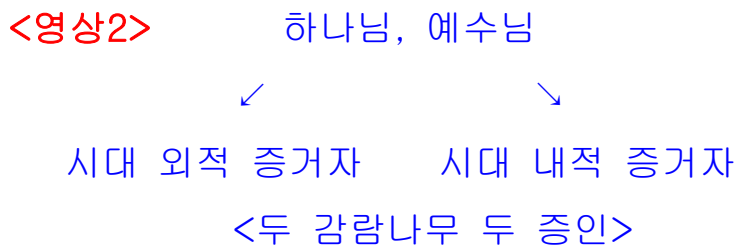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상대성을 두고 창조하시어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 개인을 봐도 육과 영으로 창조하시어 서로 관계성을 두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또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어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체도 모두 두 가지로 창조하여 서로 주고받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만물도, 우주 존재 세계도 그같이 창조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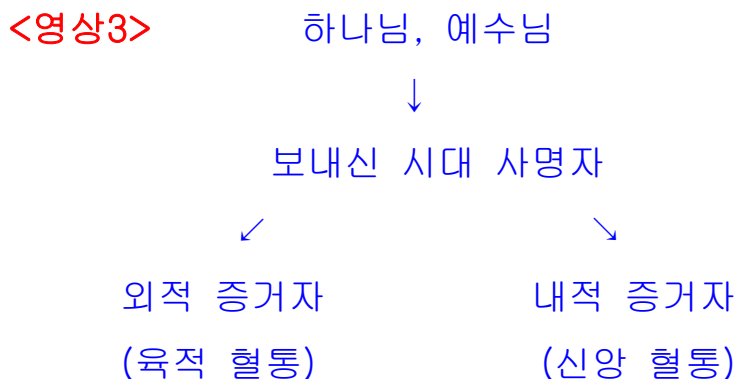
<영상1> 오른쪽 눈	⇔	왼쪽 눈
오른쪽 귀	⇔	왼쪽 귀
오른손	⇔	왼손
오른발	⇔	왼발
대뇌	⇔	소뇌
우심실	⇔	좌심실
오른쪽 콩팥	⇔	왼쪽 콩팥
큰 창자	⇔	작은 창자
육	⇔	영
육의 세계	⇔	영의 세계

<자막과 설명> 이같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상대성을 두고 창조하시어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2> 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데도 좌우에 두 사람을 세워 사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우고 보내시어 그 시대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시대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자기를 증거할 자 둘을 세워 증거하게 했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3> 한 명은 육적 혈통에서 세워 외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증거하게 했고, 다른 한 명은 신앙 혈통에서 세워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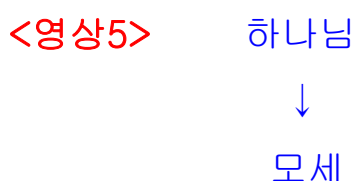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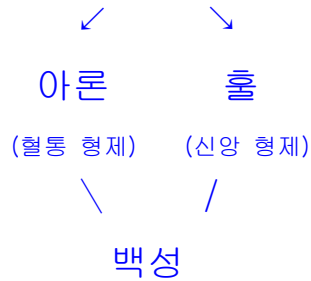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한 명은 외적 증거자로 육적 혈통 중에서 세우셨고, 다른 한 명은 내적 증거자로 신앙 혈통 중에서 세우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외적 증거자로는 예수님의 친족 혈통인 ‘세레 요한’을 이미 예정하시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계시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적 증거자로는 신앙 혈통인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모세 때도 모세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한 명은 모세의 혈통 중에 제사장 ‘아론’을 세워 모세의 외적 증인이 되어 모세를 증거해 주고 대변하게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신앙 혈통 중에서 ‘홀’을 세워 모세를 내적으로 증거하고 대변하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아론과 홀을 따라 두 증인이 되어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역사를 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모두 한 몸과 같이 일체 되어 증거해야 됩니다. 믿고 배우고 따라만 가지 말고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복음이 퍼져 나가고 믿는 자의 대역사 사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더 깊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6>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과 나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 시대마다 두 명을 보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증거를 받고 너희도 나 예수와 내가 보낸 자와 이 시대를 증거하여라.

나 예수는 전도하러 보낼 때도 제자들을 두 명씩 보냈다. 그들은 가서 한 명은 육적으로 나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한 명은 영적으로 나 예수를 증거하며 시대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했다.

한 겹 줄은 약하듯이 너희도 혼자서는 약하다. 둘이 하나 되어 두 겹 줄이 되어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나 예수와 내가 보낸 자를 확실히 증거하여라.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쓰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고 전하고 증거하여라. 지난 30년 동안 섭리 역사를 편 것이 증거가 아니냐. 고로 이같이 역사가 퍼져 나아간 것이다.

너희가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나왔다고 증거하여라. 또한 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사명자를 통해서 말하니 그 말이 옳다고 확실히 전해 주어라. 이제 신약역사 2000년이 넘었으니 성경대로 약속한 재림의 역사 천년왕국 혼인 잔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예수가 시대 사명자를 통해 1000년 역사를 시작했다고 증거하여라.

육신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내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사망에서 나오고, 육신을 따라 그 영도 온전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땅에서 이루는 육적 휴거라고 가르쳐 주어라. 그러나 천사장이 나팔 불면 나 예수의 영이 신랑으로 와서 하늘나라 신부의 형체로 온전히 변화된 영을 휴거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고 가르쳐 주어라. 영은 하늘 공중으로 휴거되고, 육신은 휴거된 몸으로 지구 공중인 땅에서 나 예수를 신랑으로 맞고 산다고 가르쳐 주어라.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사람의 육신은 땅에서 휴거를 이루는 시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나 예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휴거’라고 가르쳐 주어라. 그다음에는 육신의 행실에 따라 변화된 영이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예수가 왔을 때 나 예수를 맞아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 육신 재림, 육신 휴거 그림

<자막> 무지하면 문자대로 육신 재림, 육신 휴거라고 말한다.

* 섭리역사 재림과 휴거 도표

-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우리 육신이 듣고 행하니 그 육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왔다. 그 영도 육을 따라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산 영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를 이루며 산다 → 이것이 육적 휴거다. (섭리역사 30년)

- 천사장이 나팔 불고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 신랑으로 오신다. 이때 땅에서 육신의 행실을 따라 하늘나라 신부의 형체로 변화된 영혼만 주님을 맞아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간다. → 이것이 영적 휴거다.

- <육적 휴거 / 영적 휴거 도표>

1.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2. 먼저는 우리 육신이 예수님이 육으로 보낸 사람을 통해 땅에서 이루는 육적 휴거역사요, 그다음은 변화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영을 맞아 하늘나라로 가는 영적 휴거역사다.
3. 먼저는 육이 시대 말씀 나팔 소리를 들어야 그 영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된다.
4. 과정 중에 성공해야 결과에서도 성공한다.

너희가 배운 것을 전해 주고 증거해 줘야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내가 보낸 자의 증인이 된다. 담대히 전하여라. 이 같은 온전한 진리를 받고도 못 전하느냐. 증거를 못 하는 것도 자기 책임을 못 하는 것이다. 의를 알고도 행하지 않고, 모르는 자에게 말해 주지 않고 외치지 않는 것이 죄다.

시대가 간 후에 증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모두 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잘못 인식하여 나 예수의 육신이 다시 온다고 하고, 육신이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고, 육신이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니 그 얼마나 모르고 사는 자들이냐. 무지하여 문자적으로 휴거를 생각한다.

너희가 증거하지 않으면 뺏기게 된다. 잘못된 종교가 일어나 오히려 비진리를 증거하며 맞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된다. 특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100만 대군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위대한 진리가 있어도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다.

‘육신이 휴거된다’ 라는 말은 지상에서 내가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무지의 사망권에서 나와서, 온전한 재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나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온전한 진리를 듣고 행해야 비진리를 벗어나게 된다.

이를 알고 전하는 것이 너희가 나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보낸 사명자 너희 선생을 증거하는 일이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가 가르쳐 줘야 알게 된다. 스스로 알기는 어렵다.

너희 선생을 가르친 이는 나 예수라고 가르치고, 말씀이 맞듯이 너희 선생이 시대 나 예수의 말씀의 사명자라고 증거하여라.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르니 내가 보낸 자와 너희를 잘못됐다고 한다. 사탄은 모르는 자를 통해 반대하고 핍박하니 어서 증거하여 말해 주어라. 증거하는 만큼 나 예수가 더욱 역사하게 된다.

섭리사 모든 자들은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와 내가 보낸 자를 같이 증거해야 된다. 어찌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원의 일을 하는 나의 육신 되는 자를 증거하지 못하느냐. 고로 말씀을 들어도 표상을 모르니 힘이 없는 것이다.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늘 시대 말씀과 함께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하여라. 그러면 너희 선생이 그 터전 위에 말씀으로 나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게 된다. 항상 나 예수 앞에 두 증인이며, 내가 보낸 자 앞에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이 전하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듣고, 너희 모두도 내적, 외적으로 나 예수와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해 주는 것이다.

사탄도 사람들도 내가 보낸 자를 막고 가두었다. 이는 나 예수를 막고 가둔 것이다. 그를 통해 나 예수가 나의 말을 전하는데, 그가 나의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 11장 말씀같이 사탄이 무지한 자들을 통해 막는 것이다.

자꾸 모르고 악평하니, 너희가 시대 말씀을 중심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가 보낸 자를 증거해 버려야 된다. 모두 알게 되면 누가 악평해도 그 말을 안 믿는다. “월명동 산골짜기에 뭐가 있어?” 하며 악평하는

말을 듣고 안 믿던 자도 직접 월명동을 보여 주면 좋은 것을 믿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을 보여 주어라.

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를 모르는 자들에게, 시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 증거하지 못하면 너희 생명이 약해진다.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고 외쳐야 된다. 이 말씀이 섭리사의 힘ियो, 능력ियो, 권세다. 전능자 내 아버지가 이 시대에 선포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능력을 받고 싶으냐.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냐.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소원인 증거를 해 주어라. 그러면 표적이 일어난다!

옛날에 너희 선생은 혼자서도 증거하며 왔다. 세상의 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도 혼자서도 담대히 내가 가르쳐 준 시대 복음을 증거하며 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있는데 겨우 전도해 오는 자들에게만 조용히 말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오는 환난 중에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된다. 담대히 시대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항상 두 증인이다. 너희 선생은 육이니 육적으로 전하고, 나 예수는 영이니 영적으로 근본을 전한다. 다른 자들은 자기 육 자체를 메시아 재림주로 은밀히 전한다. 그는 사탄의 영과 하나 된 자다. 너희 선생은 내 손발로 쓰여진다고 하여라. 내 몸으로 쓰여진다고 하여라. 그리고 너희 선생을 통해 그동안 나 예수가 역사를 펴 온 것을 증거하여라.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시대 복음은 ‘사랑 타락론’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지켜야 사탄을 멸한다. 나 예수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이 시대 복음을 가르치며 사탄을 멸하는 말을 하니, 사탄들은 자기들의 비밀이 누설됨으로 설 곳이 없어 내가 보낸 자를 두고 사람들을 통해 이성의 악평을 하고 누명을 씌운다. 사탄에게 쓰이는 자들 역시 성적 타락을 하여 더

육 사탄에게 쓰인다.

이 시대에 나의 역사를 펴고 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성적 타락’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성 타락에 대해 모르니, 사탄들이 성적으로 타락시켜 하나님과 사람들, 나 예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느냐.

내가 보낸 자를 이성으로 누명 씌우고 해를 주는 육과 영은 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보낸 자나 형제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보아라.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로서 마지막 심판 때이니 너희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아라.

재림 때 신부는 무엇보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신랑 되는 나 예수를 맞지 않겠느냐. 고로 나 예수는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에게 성 타락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배웠으니 아담과 하와가 이성으로 무너지고, 노아 때도 모두 이성으로 문란하여 심판을 받았고, 롯 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성 타락과 성 문란으로 심판을 받았음을 가르쳐 주어라.

섭리역사가 이 큰 비밀을 외치면서 너희가 성적으로 타락되지 못하게 하니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도 이성 타락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이 왜 죄냐고 한다. 비원리적 사랑은 죄가 아니냐.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와 이성으로 무너지게 하고, 요셉 때같이 내가 보낸 자에게 이성의 누명을 씌우며 대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시대를 증거하여라. 너희가 신랑 되는 나 예수를 맞으려면 육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 사랑의 정신과 생각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사랑’으로 변화되어 신부로서 나의 재림을 위해 단장하게 된다.

구약시대 때도 절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신약시대 때도 절대 하나님 사랑, 나 예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 시대도 절대 하나님과 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너희 육도 영도 변화되어 너희 영이나 예수의 재림을 맞아 하늘로 휴거되고, 너희 육신도 휴거된 몸이 되어 땅에서 나 예수를 신랑으로 맞고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

땅에서 절대 하나님과 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육과 영을 생명권으로 옮겨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대 사명자인 너희 선생이 나의 육이 되어 해왔다. 사랑으로 시대를 대하니, 이를 이용하여 무지한 자들이 내 사명자를 더욱 악하게 대하고 해하니 그들의 행위대로 요한계시록 11장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이미 전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그 행위대로 육도 영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육으로 보낸 사명자를 불신하고 딴 데 가서 나 예수를 부르고 찾는다고 내가 인정하겠느냐. 땅에서 내가 보낸 자를 통해 풀지 않음으로 인해 호리라도 죄가 있으면 영영 그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2000년 전 나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영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모두에게 “성령을 받고 모두 나의 증인이 되어라.” 했다. 이 시대도 모두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나 예수와 내가 보낸 자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에게 증거하라고 증거할 것을 말해 준 주 예수다.

내 말을 지켜 행하기를 바란다. 샬롬!